거침없이 하이킥

(행5;12~42)

22.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24.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26.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는 말은 TV 시트콤의 제목입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방영이 되었고, 시청률도 높고 호응을 많이 얻게 되면서 거기에 용기

를 얻어 2편으로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고 하는 후속편이 나오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고 하는 제3편까지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이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하는 시트콤을 저는 시청하지 못해서 이것을 만든 제작진의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목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
'거침없이 하이킥'
여러분 딱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 사람이 길에 놓여 있는 빈 깡통을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발로 뻥~차요, 발이 그냥 이 이마에 올 정도로 하이킥을 해서 뻥 차버리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아하~ 통쾌하잖아요, 왜 통쾌합니까?

거침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거침.
이게 우리 한국말이 아니에요, 거침이라는 말이 한글이 아니고 한자입니다, 한자.
'거'라는 말이 클 거(巨)자 거대하다 할 때 '거'자이고, '침'이라고 하는 말이 '침수지역' 이렇게 얘기할 때의 가라앉다 이런 뜻으로, 거침이라는 말 자체가 큰 강, 큰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행할 때에 큰 강이 나타나서,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거침입니다.
그렇게 큰 강이 나타나서 길이 끊겨져 버렸는데, 그 강물을 발로 뻥 걷어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어떤 질병도 거침이 될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난관도 거침이 될 수가 있고, 사람관계에서 사람이 나를 안 좋아 하거나, 나에 대해 오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거침이 될 수가 있고, 상사에게 잘못 보이는 것이 거침이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나쁜 길로 빠져든 게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거침돌이 있는데, 그것을 길거리에 놓여 진 깡통을 뻥뻥 차버리듯이, 그렇게 뻥뻥 차면서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학력이 모자란다, 내가 못생겼다, 뭐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다리가 짧고 머리가 큰, 저처럼 신체적인 어떤 뭐 핸디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좀 모자람이 있다.

이런 모~든 마음에서 느끼는 거침들을, 발로 뻥뻥 차서 날려 버리면서, 마음의 장애가 안 되게끔 그렇게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시트콤에서나 가능한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시트콤에서나 가능한 거침없는 하이킥의 삶, 거침돌들을 다~ 발로 뻥뻥 차면서 어떤 거침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예수님 복음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가장~ 상식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혜택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거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각도로 보여 질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읽지 않은 내용을 제가 잠깐 간추려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앞의 12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곳에서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들것에 병자를 매고 와 가지고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서 스쳐 지나가도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정도로, 엄청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든지,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져도 나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믿음과도 비슷한 믿음이 될 정도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과 행적이 득세를 하게 되니까,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예수님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두어서 감옥문을 든든히 잠그고, 그리고 이 감옥을 지키는 보초들을 세웠는데, 주의 사자가 와 가지고 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다 빼냅니다.
이걸 출옥이라 그래야 되나요, 탈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초는.

정말 이런 기적이 있어요? 무슨 무협소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허황돼 보이기까지 한 그러나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나왔으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곳을 피해서 좀 변방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좋을 텐데,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거침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전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순종함이 옳지 않느냐, 우리들이 사람에게 순종 하겠느냐.'
그래서 때려서 내보냅니다.
때려서 내보내는데 또 맞고 나오면서 사도들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을,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들을 불러주신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의 모든 거침돌들이 다 언급이 되는 겁니다.
거침돌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뭐 정신적인 질병이건 육체적인 질병이건, 질병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의 대적입니다.
더군다나 권세 잡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예쁘게 보질 않습니다.
회사에서 부장님이 과장인 나를 예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아닙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나를 안 받아들입니다.
이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억압을 합니다.
이 또 엄청난 장애이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핍박을 하고 매로 때립니다.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조금 연계성을 갖고 확대 해석하면, 거의 모든 장애물이 모든 거침돌이 다 망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상황과 사도들의 마음에 하나도 거침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질병도 거침이 될 수가 없고, 당국자들의 협박도 거침이 될 수가 없고, 박해도 거침이 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제한도 거침이 없습니다.
감옥에서 그냥 나와 버립니다.
지금 파수꾼이 파수를 보고 있는데, 그냥 나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 앞에 거침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들의 거침없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거침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거침없는 삶을 삽니까?
질병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주어지면,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도 그 마음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은혜다, 육체의 가시를 가짐으로써 내가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마음에 거침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반대한다, 이게 거침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태산입니까?
사업이 안 된다, 거침돌이 있지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는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거침이.
거침이 있으면 복음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늘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거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기 때문에, 하늘을 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거침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애벌레가 땅을 기어갈 때에는, 손가락만한 나뭇가지도 앞에서 거침돌이 되고, 또 좁쌀만 한

돌이 있어도 거침돌이 됩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점점 더 과정이 지나가면서 나비가 되어 버리면, 이제 땅 위에서 애벌레 앞에 놓여 있던 모든 거침돌이 거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지경입니까? 돈이 안 벌려 가지고?
거침돌이 되잖아요? 애벌레라서 그래요.
하늘을 타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을 타고 다니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거침돌이 됐잖아요? 아직 애벌레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나비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지 못했고, 내 마음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거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마음은 자유 지켰네'
이게 희한한 겁니다, 도대체 마음에 걸림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매 맞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며 살게 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 거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아 예,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될 사도들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거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침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침이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한다는 것과 거침없이 발로 뻥뻥 차며 거침없이 하이킥 하며 산다는 것은, 반대말입니다,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의 뜻이 이 땅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 안에 들어 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을 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늘을 올라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라탔을 때, 감옥문으로 철두철미하게 다 가두어 두고 보초가 지켜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뜻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타고 하늘 조각을 타고 달려갈 때는, 이 세상에서 나를 막을게 없다는 얘기에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 순종하잖아요?
세상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돈이 없으면 기가 팍~ 죽습니다.
이게 세상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는 겁니다.
몸에 조금 병이 생기면 거기에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완전히 매여 버리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하고, 우선 마음이 질병을 뛰어 넘을 때 질병도 고쳐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육체에 질병이 생겼을 때, 육체의 질병을 안고 씨름하지 않고, 거기에 매여 속박 당하고 그 질병이라는 거침돌에 마음이 걸려서 슬퍼하고 우울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우선 좀 아프더라도 참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질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내 마음이.
그럴 때 질병도 나아요.
근데 질병에 매여 있습니다.
질병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근심합니다, 걱정하고 우울해 합니다.
이거 먹힌 거예요.
질병에 순종하는 겁니다, 질병의 능력 앞에.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돈을 못 벌면 걱정하고, 질병이 생기면 걱정하고,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전전긍긍할 때, 이게 다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상에 순종할 때 이 사람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고,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하는데,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침없는 하이킥을 할 때 무엇을 발로 차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발로 뻥뻥 차버립니다, 길

거리의 빈 깡통 차듯이.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때, 이 세상 앞에 놓이게 되는 모든 거침, 거대한 강물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거침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벌이 없어도 돼요, 지금 돈이 없어도 돼요, 능력이 없어도 돼요, 지식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만 있어서 그 뜻을, 하늘의 조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고 하늘타고 가게 될 때,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거침, 거대한 강물들은 발로 뻥뻥 차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순교를 해요.
그럼 순교는 뭐냐?
죽음이 장애물로 앞에 놓이는데, 내 마음에서 이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발로 뻥뻥 차면서 나가는 겁니다, 거침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게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자들을 맞서서 다 칼로 없애버리는 게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자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매 맞아도 마음의 자유를 얻고, 죽이려는 자들이 나를 붙잡아서 죽여도 죽음이 내게 공포도 안 되고, 손해 상실감도 안 되고, 어떤 거침도 안 되는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쭉쭉 파죽지세처럼 뻗어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거침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거침없는 삶.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을 향하여 하이킥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먹혀버리고, 세상에 순복하고, 세상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이킥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날마다 장애물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거침이 돼요,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 한분께 순종하면, 그저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학벌이 좋든 안 좋든, 인맥이 있든 없든 그냥 거침없이 파죽지세로 일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내 삶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순종! 순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매 장마다 나옵니다, 사도행전 매 장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해 주셨다.”

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잊지 않고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서,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홍길동처럼, 하늘을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떨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고 그것만 붙잡고,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늘을 타고 날아가는 홍길동처럼, 거침없는 하이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되, 이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눈앞에 놓여 있는 사업상 만나는 사람 권력자, 뭐 이런 모든 것들에 신경 써서 그것들에 순복하고 그것들에 마음을 뺏겨 버려서 세상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거침없이 하이킥 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거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거침없는 하이킥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거침없는 하이킥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이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만이, 하늘 구름 되어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이 그 하늘 구름 타고 날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